

對 인도네시아

시멘트 輸出展望

金 元 謙

(大韓貿易振興會社 調査部)

1. 概 況

1964年 처음으로 海外市場에 進出하기 始作한 우리나라 시멘트는 國內需要의 急增으로 輸出이 不振했던 1966年을 除外하고는 꾸준한 增加를 示顯하였다.

그러나 아직 輸出額은 큰 增加를 보지못하고 있으며 1968年에 만도 시멘트 輸出額은 2.6 億만 弗로 目標額인 3.55 億만 弗에 未達하였던 것이 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시멘트 輸出市場이 東南亞 몇개 市場으로 限定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시멘트 工業 自體가 비교적 그 歷史가 짧고 아직도 施設 擴張 段階에 있는데 그 主要한 理由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정부와 業界는 一次 5 個年 計劃 期間에 이어 第 2 次 5 個年 計劃 期間中에는 시멘트 工業의 施設 擴張과 生産 增大에 努力하고 있다. 그 結果 1971 年度에는 10.5 億만 弗의 시멘트 생산을 目標額 으로 하고 있으며 計劃 期間中 國內 需要 增加率을 年平均 70%로 추정하여 輸出 餘力은 1969年에 1,445천 弗 1970年에 2,594천 弗 그리고 1971年度 에는 4,373천 弗을 計上하고 있다.

이러한 生産 增大에 따라 政府는 1969年 目標額 을 600萬 弗로 策定하고 이의 達成을 積極 시도 한 결과 1969年 6월 末 現在 우리나라 시멘트 輸出 額은 總 3,650천 弗에 達하므로 目標 達成에 比較 的 밝은 展望을 보여주고 있으나 輸出 市場은 역시 越南과 싱가폴의 2個 市場에 局限 되어 있어 우리의 當面 課題는 무엇보다도 輸出 市場의 多邊化

라 하겠다.

이러한 차제에 그동안 長時間에 걸쳐 關係 機關 그리고 KOTRA Djakarta 易 貿易 館 및 우리 業界의 꾸준한 努力의 結果로 우리나라 産 品 시멘트 5,000%이 인도네시아에 處女 輸出되게 된 것은 우리 시멘트 輸出 業界에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今般 Trial case로 輸出되는 우리나라산 시멘트 는 인도네시아 羈지의 輸入商인 B商社에 의 하여 Sumatra의 Medan 地域으로 輸出되는데 現在 인도네시아 市場에는 日本 蘇聯 臺灣 中共 産等이 各各 독특한 方法과 오랜 전통을 갖이고 그들간 치열한 競爭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앞 으로 우리가 이웃 市場을 擴張하고 계속적인 輸出 增大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도네시아 市場에 대한 심화된 知識과 市場 接近 方法에 정확 진 속을 기하 하므로써 市場 적응 能力의 배 양을 기하여야 하겠다.

2. 需要測定

(1) 生産現況

인도네시아에서는 今年 4월부터 始作된 經濟 開發 5個年 計劃의 推進으로 灌溉事業 댐 工事 道路 港灣 工事 住宅 建設等으로 시멘트의 需要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現在 3個의 시멘트 生産 工場이 稼動하고 있는데 年間 生産 能力은 아래와 같다.

Gresik 工場(東部자바所在) 37萬5千톤

Indarung 工場(西部스마트라所在) 12萬톤
Tonassa 工場(南部스다웨시所在) 2萬톤

上記 Tonassa 工場은 1968年末에 稼動을 始作한것이며 따라서 2年前까지만해도 2개의 시멘트工場만이 稼動했으며 年間生産能力은 50萬톤 未滿으로 그것마저도 國內建設事業等的 不振으로 完全가동을 하지 못하고있어 從來의 實際生産量은 40萬톤을 약간 넘는것에 불과 했다.

그런데 短期 2個年の 安定計劃이 第1次 5個年計劃의 整地作業으로 成功裡에 끝나면서부터 5個年計劃에 수반하는 灌溉, 댐, 道路, 住宅等的 建設붐이 점차 일기 始作한 1968年 中葉부터 國內 시멘트 需要가 늘어나고 새로운 Tonassa 工場의 준공을 서둘기에 이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生産能力도 늘어나는 國內시멘트 需要를 充足시키기에는 막대한량이 不足한 狀態로 결국 부족량에 대한 輸入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現在 인도네시아의 政府當局에서는 同國의 시멘트 年間 總需要量을 150萬톤으로 推산하고있으며 이중 1/3이 國內生産으로 充當되고 나머지 2/3인 約 100萬톤이 海外로부터 輸入되고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2) 生産計劃

石灰石을 비롯한 시멘트 原料를 國內에서 充分히 確保할수있고 農業生産의 增大와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에 重點을 두고있는 인도네시아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추진에 있어서 莫大한 시멘트의 需要量을 고려할때 現在 인도네시아의 정부에서 시멘트工場의 擴張과 新設에 優先權을 주고있는것은 當然한 일인것이다.

인도네시아 政府에서는 上記한 年間 100萬톤의 供給不足量을 메꾸기위해 5個年 計劃期間中 우선 上記 3個工場의 施設擴張을 서둘르고 있으며 아래표와같이 初年度는 69/70 年度の 60萬톤에서 71/72年度에는 85萬톤으로 擴大키로 決定하고 同施設擴張에 所要되는 外資 710萬弗과 內資 14 億루피아를 計上하고있으며 그중 Gresik 工場은 이미 美國 U.S.A.I.D로 부터 工場施設擴張을 위해 630萬弗의 借款을 確保하였다.

이밖에 石灰石의 埋藏量이 많다는 西部자바의 Tsibinong 이라는곳에 第4 시멘트 工場建設을

위한 基礎調査를 進行하고 있으며 年産 40萬톤 規模의 同工場은 P.T. Gresik 社와 美國의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社와의 合作投資로 72/73年中에 着工하여 72/73年度에 完工할 豫定으로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年産 40萬톤의 第5 시멘트工場建設計劃도 現在 檢討中에 있으며 場所는 北部 Sumatra 와 Bohorak, 北端의 Atjeh, 中部 자바의 Pamotan 등이 候補地로 物望에 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年度別 시멘트 生産計劃

(表1) (單位: 1,000톤, 10억 루피아)

年 度	生 産 量	增 加 率	金 額
1968/69	515	—	3.24
1969/70	600	16.5	3.78
1970/71	675	17.5	4.25
1971/72	850	25.9	5.35
1972/73	1,250	47.1	7.37
1973/74	1,650	32.0	10.33

인도네시아의 工場別 시멘트 生産計劃

(表2) (單位: 1,000톤)

工場 別 年 度	Gresik	Indarung	Tonassa	Tjibinong	New Project
	1968/69	375	120	20	—
1969/70	400	120	80	—	—
1970/71	400	175	100	—	—
1971/72	510	220	120	—	—
1972/73	510	220	120	400	—
1973/74	510	220	120	400	400

한편 이러한 計劃이 順調롭게 進行되면 인도네시아는 1973/74年度부터는 시멘트를 自給自足할수있게될것이다.

(3) 輸入現況

시멘트의 主要輸入 對象國은 日本 싱가포르, 臺灣, 西獨等이며 이중에서도 日本의 對인도네시아 市場占有率은 압도적이다.

10,000 餘個의 大小 島嶼로 되어 있고 交通과 通信이 後進의인 인도네시아에서 正確한 輸入統計는 入手할수없으며 統計當局에서 發表하는 統計조차 信빙성이 없으나 인도네시아의 中央統計局에서 발표한 시멘트 年度別 輸入統計는 아래와 같다.

(表 3)

인도네시아의 年度別 시멘트 輸入量

年度	輸入量 (單位: 1,000kg)
1965	345.5
1966	390.0
1967	197.03
1968(1-6)	98.3

資料: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한편 다음은 中央統計局에서 發表한 Import by Commodity 1967년의 國別 시멘트 輸入現況이다.

(表 4) 인도네시아의 國別 시멘트 輸入實績(1967)

國 別	輸入量(kg)	金 額(us \$)
Japan	90,907,130	2,322,737
Singapore	33,245,929	1,014,446
Hongkong	14,524,759	405,116
Red China	26,071,450	694,464
U.S.A	1,390,448	148,972
Taiwan	2,512,500	05,146
North Korea	5,517,943	135,623
West Germany	3,608,123	206,351
other Countries	18,294,952	367,335
Total	197,073,244	5,360,335

資料: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上記表에서 보면 중공과 북괴產도 相當量이 이곳市場에 進出되고있으나 이들제품은 인도네시아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지 않다는 이유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있어 앞으로 이들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절감될것으로 고려된다.

물론 상가통제는 인도네시아의, 시멘트輸入總量을 망라한것이라고 볼수없다. 이는 萬餘個의 大小島嶼로되어있는 인도네시아에는 指定된 Central Bureau 만해도 74個 港이며 이밖에 特產物輸入을爲한 特殊港이 24個 그리고 對 싱가포르 換積港이 16個港이 나되며 交通 通信이 말할수없이 不便한 인도네시아의 統計當局이 이모든 港口로부터의 數量의 流出入을 集計하기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다만 上記 中央統計局이 發表한 統計에서 알수있는것은 對 인도네시아 시멘트 輸出國中 日本이 斷然首位를 찾아 하고있으며 다음이 싱가포르(主로 蘇聯製 시멘트의 中繼輸出入), 中共 香港, 臺灣, 北傀 등이 主要 輸出國임을 알수있다고 이와같이 國內需要를 充當하지 못하는 인도네

시아에서는 시멘트를 輸出한 實績은 없으며 需要量의 大部分을 海外로부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인도네시아는 1次開發 5個年 計劃期間中에 既存 生産工場의 施設擴張과 新規工場을 建設하므로써 上記表 2에 나타난 바와같이 最終年度인 73/74年度까지에는 年產 165萬톤의 施設能力을 갖추어서 시멘트의 自給自足を 期한다는것이 現政府의 方針인것이다.

3. 競爭現況

(1) 競爭國別 市場占有率

上述한바와 같이 對인도네시아 主要시멘트 輸出國은 日本, 臺灣, 中共, 蘇聯 西獨 北傀等이다. 正確한 輸入統計를 入手할수없기 때문에 競爭國別市場占有率을 正確하게 計算할수없으나 競爭國家들中에서 日本이 단연 압도적이며 全인도네시아 輸入量의 60%以上을 차지하고있다.

日本製인 Asano, Onoda, Diamond 등의 Brand 中에서도 Asano Brand가 가장 人氣가 좋으며 오랜 기반을 구축하고있다.

다음으로 人氣가 좋은것은 臺灣製이며 臺灣製 Brand 中인 Double elephant 와 Double dragon 中에서 Double dragon은 더 人氣가 좋은편이다.

싱가폴을 거쳐서 들어오는 蘇聯製나 北傀產 Dear 標(노루표)는 색갈이나 性分에 있어서 그 評價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1967年度 까지 폐 많이 들어왔다는 中共製는 近來에와서는 인도네시아市場에서 그다지 찾아 볼수없게 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國內生産 시멘트 中에서는 Gresik 標가 가장 有名하며 그 性分이 인도네시아의 氣候 風土에 適合하고 品質, 價格이 能히 輸入品과의 경쟁이 可能하다는 評을 받고있다.

(2) 輸入價格

現在 인도네시아에 Offer 되고있는 各國別 시멘트의 價格은 다음과 같다. 日本製(Asano, Onoda, Diamond)... \$ 18.30 C&F

(Commission 5%포함)

臺灣産 (Double elephant, Double Dragon)US \$
 17.50 C&F (Commission 3% 포함)
 北傀産(노루표).....US \$ 17.50 C&F
 Commission 3% 포함)

한가지 特記할 事實은 各國 공히 F.O.B. 價格은 大略 \$12.50 線으로 大同小異하나 對 인도네시아 시멘트 輸出에서 問題는 運賃競争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런점에서 臺灣은 地理的으로 가깝다는 有利한 點에 있으며 日本은 各社가 自體의 시멘트 專用船을 活用하여 適期 Delivery를 可能하게 할 뿐만 아니라 小量注文을 받아도 供給할수 있기 때문에 輸入業者의 관심을 사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適期供給을 爲한 船便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小量注文은 받을수없는 處地이다.

또한 最近 輸入시멘트의 小賣時勢를 보면 地方마다 勿論 價格이 다르지만 大략 아래와같다 이는 地評 Sumatra 首都 Medan 의 時勢로써 자카르타의 時勢도 이와 비슷하다.

日本製 (Asano)	Bag 당	RP. 565
臺灣製 (Double elephant)	〃	RP. 560
北傀製 (노루표)	〃	RP. 520

4. 流通經路

인도네시아에서 시멘트需要는 크게 나누어서 官需와 民需部門으로 나눌수있다. 官需는 주로 公共事業省에서 所要되는 國道建設과 補修, 灌溉事業 塹建設 住宅建設等 Project 用이며 從前에는 公共事業省에서 配定된 豫算으로 必要 시멘트를 一括輸入하여 各 Projects manager 에게 分配해주는 一種의 統制의 성격を 띠고 있었으나 近來에 와서는 이러한 統制가 完全히 廢止되어 各 Project 에서 所要되는 시멘트를 輸入하던 國內에서 調達하던 各 Project 의 manager 의 裁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例컨대 Gresik 시멘트 工場 近處에 있는 東部 자바 Project 의 manager는 거리가 가깝고 輸送費가 절감되는 故로 國產 시멘트를 國內에서 購入해서 使用 하는가 하면 이러한 國產시멘트 工場과 거리가 먼곳에 있는 西部 자바에

있는 Projects 의 mark-up 들은 輸送手段이 어렵고 따라서 값이 비싸게드는 國產 Gresik 시멘트 보다는 輸入시멘트가 價格面에서 有利하기 때문에 所要시멘트를 輸入에 依存하고있다.

他方政府의 所管事項인 州道の 建設 補修 및 灌溉, 塹, 工事, 住宅建設 等に 所要되는 시멘트의 경우에도 大개 中央政府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며 地方政府의 各種 Projects 에 所要되는 시멘트를 輸入하는 경우에는 그財源은 主로 A.D.O 이다. 이 ADO 란 그地方에서 輸出된 모든 輸出商品의 販賣代錢의 10%를 그地方政府에 納付하는 一種의 輸出稅이며 이것이 그地方政府의 輸入財源으로 使用되는 것이다.

要컨대 官需用 시멘트는 各 Project manager 가 直接輸入을 하거나 또는 輸入業者를 通하여 所要 시멘트를 輸入하고있다.

一般民需用의 경우는 輸入業者 都賣業者 小賣業者의 經路를 밟는다. 이경우 輸入業者가 都賣業者를 兼하는 경우가 許多하다.

한가지 特記할것은 輸入業者는 大개 都賣業者로부터 一部 保證金을 받고 15日 내지 30日間의 信用去來를 하고 있다는것이다.

5. 輸入關稅

인도네시아의 輸入制度上 시멘트는 B.E.List의 Group B 에 屬하는 品目으로서 特別한 輸入制限은 없으며 關稅率은 다음과 같다.

基本輸入稅: C&F 價格의 10%

輸入附加稅: 基本輸入稅의 150%

(10% × 15 = 150%)

物品稅: 基本 輸入稅와 輸入附加稅의 5%

(10% + 15%) × 5% = 12.5%

合計: C&F 價格의 37.5%

課稅基準은 現在 C&F 價格 \$ 1

에 대하여 Rp 325 이다 이課稅基準은 換率의 起伏에 따라 每月 달라지며 每月初에 財務省에서 決定하여 公告하기로 되어있다.

6. 販賣促進方法

前述한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는 3~4 年前부터 북괴산이 다소 들어오고 있으나 이것이 풀질

포장면에서 좋지 못한 評을 받고있다.

한편 現在 船積을 서두르고있는 우리나라산 雙龍標 가 이곳에 輸出되면 不可避 북괴산 臺灣의 Double Dragon 그리고 既存 基盤이 확고한 日本의 Asano 等과 競爭을 하게될것이다 特히 우리나라의 雙龍標는 北傀의 노루표와 함께 Korean Cement로 販賣될 可能性이 있으며 그러한경우 우리 雙龍標가 다같은 Korean Cement로 北傀産과 混同될 우려가 있으므로 北傀産시멘트의 惡印象이 우리나라 製品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現地에서의 宣傳活動이 強化 되어야 할것이라고 輸入商 C.V. Berkat Co.의 理事인 Mr. Sutoje는 力說하고 있다.

한편 對人販賣를 할것인가 代理店設置를 할것인가 하는것은 速단할수없는 問題이나 現時點으로 보아서는 日本의 경우처럼 여러商社가 進出하여 組織化된 販賣活動을 하고있는 處地도 못되는 우리나라의 實情으로는 인도네시아와같은 그광활한지역에서 그많은 輸入商을 일일이 상대하기란 매우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스마트라지역, 東部자바, 수다웨시 등 一定한地域에 限定해서 그 地域內에 有力한 販賣網을 가지고있는 商社를 選定하여 代理店役割을 하도록 하는것도 적절한 販賣促進方法이 될 것이다.

現在 스마트라의 有力한 販賣網을 가지고있는 有力한 商社가 스마트라地域에 대한 韓國産 시멘트의 Sail agent를 希望하고 있으며 이것은 現時點으로써는 有力한 販賣促進方法이 될 것이다.

7. 우리나라의 進出展望

上述한 바와같이 인도네시아정부는 經濟開發 5個年 計劃期間中 시멘트의 自給自足を 目標로 年間 生産能力 165萬톤을 確保하기위한 既存施設의 擴張과 新規工場의 新設計劃을 推進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計劃이 順調롭게 進行된다면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시멘트 輸入需要는 점차로 줄어들것이며 韓國産시멘트의 대 인도네시아 輸出도 앞으로 5年間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農業生産의 增大와 社會間接資本의 擴張에 最重點을 두고있는 인도네시아의 開

發計劃의 추진과 더불어 시멘트의 需要도 계속 증대될것이다. 이러한 時期에 마침 우리나라製品이 이곳에 첫선을 보이게된것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시멘트는 인도네시아시장에서 오랜기반을 가지고있는 日本製와 政策的 輸出을 試圖하고있는 臺灣製와 價格, 品質, 포장, 運賃面에서 치열한 경쟁을 면치 못할것이다.

더구나 Gresik 인도네시아産 시멘트도 그性分이 인도네시아의 氣候 風土에 適合하고 品質, 價格面에서 能히 輸入品과 競爭이 可能하다는 評이니 앞으로 輸出될 우리나라 Cement가 果然 색깔이 진한것을 좋아하는 現地 消費者의 기호에 맞을런지 또는 그성분이 인도네시아의 풍토에 적합할런지는 後日 Test를 거친 消費者의 評을 들어 보아야 알일지만 우리나라産 시멘트의 계속적인 對인도네시아 輸出을 위해서는

첫째. 價格이 이곳에 進出하고있는 各國의 제품과 경쟁적이어야 한다.

둘째. 地理的으로 가까운 臺灣과 시멘트 專用船으로 小量注文에 應할수있고 適期供給을 기할수 있는 日本과 運賃面에서 競爭이 可能하도록 積極적인 對策을 樹立해야할것이다.

現在 大商社의 支社등이 多數進出하고있는 日本業者들은 道路工事 Building 교량건설등 各種 Project 別로 交涉하며 小量注文量을 集計 4,000~5,000 噸의 一船積分이 되면 專用船으로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輸送問題는 “카리만탄” 地區의 木材伐採事業이 本格化되던 우리나라에서 容船으로 나가는 木材專用船을 活用하여 運賃問題와 Delivery 問題를 해결해 나가는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이곳 인도네시아市場에 全然 Brand가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산의 계속적인 진출을위해서 그리고 북괴산과의 혼동을 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輸入業者들의 集中的인 現地 宣傳活動이 절대 필요한바 이를 積極 支援하는 方途가 우리業界와 關係機關에서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같은 제반 問題點의 해결과 業界의 보다 꾸준한 輸出에의 努力만 지속된다면 최소한 앞으로 數年間의 대인도네시아 시멘트 輸出展望은 매우 밝다 하겠다.